

# 10월을 붙잡고 싶나요? '1930양림살롱'에 오세요

## 문화가 있는 날

내일 문화가 있는 날  
광주비엔날레 야간 개장  
광산문화회관 인문학 콘서트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다양한 문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26일 찾아온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야간 개장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밤 9시까지 운영하며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후 6시 이후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관람객에 한해 특별 할인 혜택(어른 9000원·청소년 4000원·어린이 2000원)도 제공한다. 또 오후 6시 이후 11:37·101·252·2016번째로 입장권을 구입한 관람객에게 도록(판매가 4만원)을 증정한다. 오후 6시20분에는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상영돼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문의 062-608-4224.

양림동 일대에서는 올해 마지막 '1930 양림살롱'이 펼쳐진다. 오후 5시부터 호랑가시미술관에서는 영화 '해어화'를 상영하며 전천일 평론가와 함께하는 영화토크를 진행한다. 515카페에서는 오후 6시·7시 어쿠스틱플레이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선착순 5명에게는 인물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함께한다.

오후 6시30분·8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규가 양림동의 풍경을 주제로 한 피아노 모음곡 '양림의 거리'를 직접 연주한다. 오후 7시30분부터는 모던걸과 함께하는 야간투어가 이뤄진다. 문의 070-4239-5040.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날은 30년간 백석을 짚어왔다는 시인 안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7일 '1930 양림살롱' 올해 마지막 행사가 열린다.

현이 '시인 백석을 통해 본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문의 062-960-8833.

같은 시각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는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FunFun Classic'이 무대에 오른다. 입장료 1000원. 문의 062-654-4317.

광주문화재단은 낮 12시20분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광장에서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과 함께하는 런치콘서트를 진행한다. 노르웨이 민속음악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흑인·라틴음악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아빠의 청춘', '남행열차' 등 트로트 매들리 등을 플루트 연주로 들려주는 무대도 선보인다. 문의 062-670-7945.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 오후 3시부터 어쿠스틱앙상블 '재비'가 출연해 '청춘'을 주제로 전통악기를 연주한다. 황진이 시조 '상사방'에 음을 붙여 사랑에 대한 감성을 보여주는 전통가곡 공연, 자

유로운 해금 선율과 리드미컬한 피아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너털마당에서는 30일까지 '무등울림'축제 행사의 하나로 연극·합창·밴드 공연과 주말 국악대제전이 진행된다. 문의 062-232-1599.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는 오후 5시30분부터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가 진행된다. 퓨전재즈 앙상블 '재즈홀릭'이 참여해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을 기타리스트와 밴드 합주로 선사한다. 기타를 비롯한 건반, 베이스, 드럼,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들로 'Outlet', 'Blues for Narada' 등을 소개한다. 또한 응모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에서 열리는 기획공연 초대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문의 062-360-8431.

광주시립미술관은 오후 5시부터 광주정신을 소재로 세계적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정영창 작가와의 토크를 진행한다. 또 인

디언 수니의 통기타 연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는 이효원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건축, 시대정신으로 행해진 상상의 실현'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다. 문의 062-613-7153.

그밖에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는 오후 7시 국악기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광주시립사직도서관에서는 오전 10시30분부터 김기운 작가의 '엄마와 크레파스 새를 부르다' 전시 해설이 열린다. 계림꿈나무도서관은 오전 10시30분부터 종이접기와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을 진행하며 오후 4시부터는 영화 '주토피아'를 상영한다. 문의 062-608-2327. 산수도서관은 색깔 도깨비 동화 구연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공기놀이, 칠고놀이, 딱지치기 체험을 준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바이올린·피아노·첼로...프로젝트 연주그룹

## '어쿠스틱 카페' 광주 첫 공연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가 어우러진 '어쿠스틱 카페'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좋지만 역시 가을에 들어야 제맛이다. 특히 그들의 대표작인 'Last carnival'에서는 쓸쓸한 가을날 분위기가 물씬 묻어난다. 또 잔잔한 느낌의 'long long ago', 'hope for tomorrow' 등도 진숙한 멜로디로 위로를 전한다. 드라마 OST와 광고 등에도 많이 삽입돼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곡들이다.

2008년 첫 내한 공연 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어쿠스틱 카페'가 광주에서 첫 공연을 갖는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프로젝트 연주그룹 '어쿠스틱 카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키보드리스트 조루 노리히로, 피아니스트 나카무라 유리코, 첼리스트 마에다 요시히로가 결성한 단체다. 이름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뮤지션들이 카페에 모여 자연스

럽게 연주하는 그룹으로 딱히 뮤지션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번 공연에는 리더 조루 노리히로와 첼리스트 아야코, 피아니스트 데라다 시호가 함께한다.

멤버들이 직접 작곡한 작품부터 클래식, 영화음악, 팝, 뉴에이지, 뮤지컬, 탱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매된 음반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발매한 앨범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과 함께 보너스 트랙으로 '목표의 눈물'과 '비목'을 신기도 했다.

'마음 속 현을 연주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어쿠스틱 카페'의 오리지널 곡인 'Last carnival', 'long long ago', 최근 발매한 '라스트 카니발' 수록곡을 비롯해 그들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7만7000원, 5만 5000원, 3만3000원. 문의 02-338-35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실내악 페스티벌·한국의 4계...제27회 광주음악제

29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음악협회(회장 김유정)가 주관·주최하고 광주예총이 후원하는 '제27회 광주음악제'가 오는 29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두 차례 열린다.

오후 3시 공연 '실내악 페스티벌'은 올해 광주음악제에 참여하고 싶은 실내악 단체들과 외국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귀국

한 신인들에게 출연 기회를 주기 위해 공모를 통해 출연자를 선정했다.

출연자는 크로이츠 피아노트리오, 투피 앙상블, 소프라노 윤한나·윤정, 첼로 이대로, 바이올린 박승원, 플루트 나리, 오보에 박영근, 피아노 동수정·이인현·심관섭 등이다.

오후 7시30분 공연 '한국의 4계-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다시 봄'은 한국 가곡

들을 여러가지 버전과 컨셉, 아름다운 영상이 어우러진 무대다. 광주음악협회 분과위원장인 피아니스트 이상록과 소프라노 유영민이 기획·연출하고 구희영, 김현욱, 송지나, 국승이가 가곡 편곡자로 참여했다.

각 계절마다 여러 색깔의 음악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며 전공 음악인들과 음악애호가들, 음악동아리 단체들이 함께 어우러

지는 무대다.

소프라노 구희영·유영민, 바리톤 염종호, 피아노 장효중·이상록·박지현, 칸타빌레조창단, 강은숙 재즈밴드, 조선대학교 교수합창단, 고수 한정민, 광주음악협회 관현악앙상블(바이올린 김도연 박승원, 비올라 김현경, 첼로 윤소희, 플루트 최은선, 클라리넷 구희균, 바순 인혜비)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2625-3144, 010-3625-51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내일 DJ센터에서 '제5차 아문도시이슈포럼'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회(회장 손정연)이 '제5차 아문도시이슈포럼'을 개최한다.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송진희 교수(호남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성호 대표(도시문화재단CS)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옥자 의원(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조 편집국장(광남일보), 남호정 교수(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이기춘 상임

이사(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황병하 교수(조선대 아랍어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광주시와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회포럼은 이번 이슈포럼에 이어 11월에는 시민참여 대토론회를 개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담론을 2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문의 062-611-2427.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종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